

비교 항목	은 (Silver)	금 (Gold)	구리 (Copper)	달러 (USD)
자산 성격	귀금속 + 산업재 (이중 성격)	주로 귀금속 (화폐 기능, 가치 저장)	주로 산업재 (기초 원자재)	기축 통화 (Fiat Currency)
주요 가치 동인	안전자산 수요 + 산업 수요 (전자, 태양광, 의료 등)	전자산 수요, 인플레이션 헤지, 통화 가치 하락 우려, 중앙은행 보유	글로벌 경기 회복, 건설/제조업 생산 활동, 에너지 전환(전기차, 신재생)	경제 상황, 기준 금리, 연준 통화 정책, 글로벌 유동성 및 안전자산 선호 심리
안전자산 역할	중간 (금보다는 작지만 역할을 함)	강함 (대표적인 안전자산, '가치 저장 수단')	약함	강함 (글로벌 위기 시 선호되는 경향)
경기 민감도	중간~높음 (산업 수요 영향으로 경기에 민감)	낮음 (경기가 불안할 때 오히려 강세)	높음 (경기에 매우 민감한 지표 - 'Dr. Copper')	높음 (미국 경제 상황 및 금리 영향)
변동성	높음 (금보다 유동성이 낮고 산업 수요 영향)	중간 (은, 구리보다 낮음)	높음	중간~높음 (정책 발표, 경제 지표 등에 따라 변동)
인플레이션 헤지	가능 (실물 자산)	강함 (대표적인 인플레이션 헤지 수단)	가능 (실물 자산, 원자재 가격 상승 효과)	불가능 (오히려 인플레이션 시 가치 하락 가능)
수익 발생 방식	오직 가격 상승 (실물/파생상품)	오직 가격 상승 (실물/파생상품)	오직 가격 상승 (실물/파생상품)	이자 수익 (예금 형태), 환차익 (환전)
보유 목적	안전자산 + 산업 성장 참여 + 높은 변동성 활용	자산 가치 보존, 인플레이션/위험 헤지, 포트폴리오 안정성	글로벌 경제 성장 참여, 산업 수요 변화 대응	국제 거래, 자산 배분, 환차익, 단기 자금 운용
주요 리스크	가격 변동성, 산업 수요 감소	가격 변동성, 고금리 환경 (보유 기회비용 증가)	경기 침체, 수요 급감, 공급 과잉	미국 경제 침체, 금리 인하, 통화 정책 변화, 인플레이션